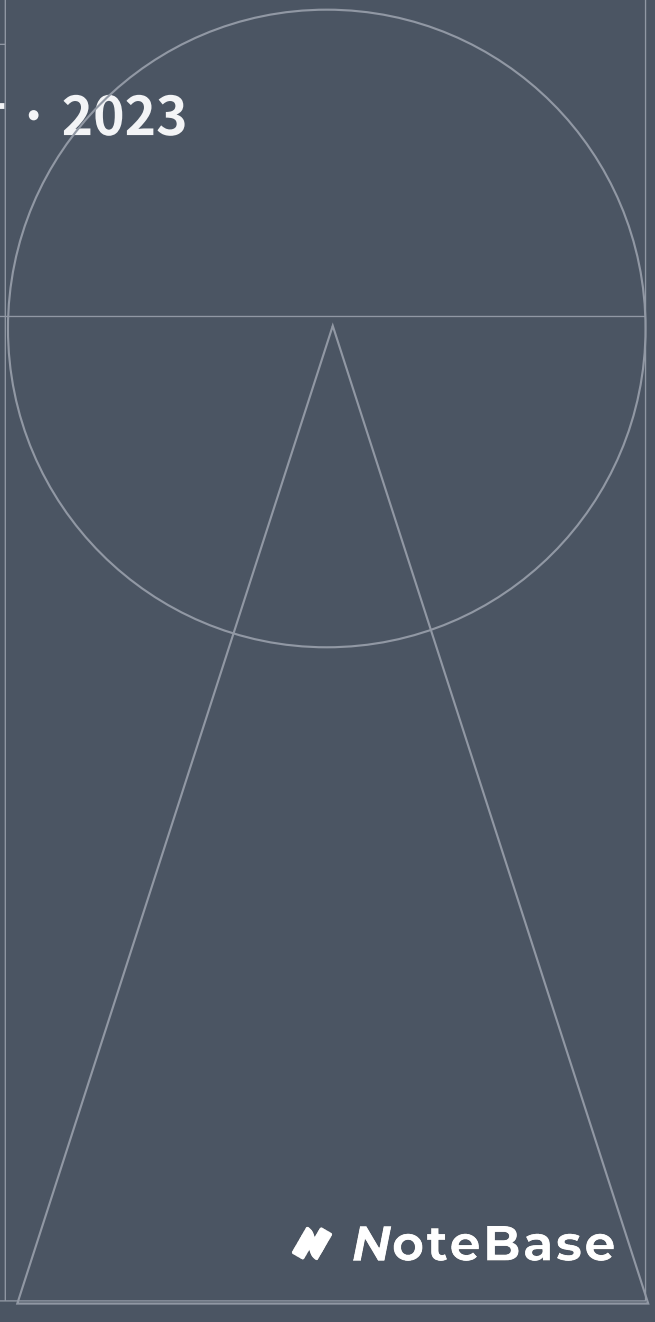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7급 · 조경학 · 2023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7급 · 조경학 · 2023

공무원/지방직/7급 · 조경학 · 2023

문 1. 유럽의 정원 중 양식이 다른 것은?

① 스토가든(Stowe Garden)

② 스투어헤드(Stourhead)

③ 헤렌하우젠(Herrenhausen)

④ 블렌하임 궁원(Blenheim Palace)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유럽 정원의 대표 사례를 영국 풍경식 정원과 대륙의 정형식 정원으로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영국 풍경식 정원은 자연스러운 지형·수면·수목의 경관을 중시하고, 직선 축선과 기하학적 화단을 약화한 양식이다.
스토가든은 18세기 영국 풍경식 정원의 대표 사례이다.
스토어헤드는 호수와 완만한 지형을 활용한 영국 풍경식 정원의 대표 사례이다.
헤렌하우젠은 축선과 대칭, 기하학적 구성의 독일 바로크식 정원이다.
블렌하임 궁원은 브라운의 개조를 통해 영국 풍경식 경관을 대표하는 사례가 되었다.

선지별 해설

① O. 스토가든은 자연풍경을 회화적으로 구성한 영국 풍경식 정원의 대표 사례이다.
② O. 스토어헤드는 호수와 신전·수목을 결합하여 자연스러운 경관을 연출한 영국 풍경식 정원이다.
③ X. 헤렌하우젠은 다른 세 곳과 달리 독일 바로크식의 정형 정원이다. 틀린 표현 → 올바르게는 헤렌하우젠을 영국 풍경식 정원으로 분류하지 않으며, 축선·대칭·기하학성을 중시한 정원으로 본다.
④ O. 블렌하임 궁원은 브라운에 의해 자연풍의 넓은 경관으로 정비되어 영국 풍경식 정원 계열에 속한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네 정원이 모두 유럽에 있어 지역만으로는 구분되지 않는다. 영국의 스토가든·스토어헤드·블렌하임 궁원과 독일 바로크식 헤렌하우젠의 양식 차이를 구별하는 데 함정이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원 사례가 나오면 자연스러운 지형과 수경을 중시한 영국 풍경식인지, 직선 축선·대칭·기하학적 화단을 중시한 바로크 정형식인지로 먼저 나누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스토가든·스토어헤드·블렌하임은 영국 풍경식, 헤렌하우젠은 독일 바로크식 정원이다.

NoteBase

문 2. 경관생태학에서 다루는 경관의 주요 3가지 연구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조(structure)

② 기능(function)

③ 복원(restoration)

④ 변화(change)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경관생태학이 경관을 연구하는 세 핵심 대상인 구조, 기능, 변화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구조는 경관 요소가 공간적으로 어떻게 배열·연결되어 있는가를 뜻한다. 기능은 그 경관 요소 사이에서 생물·물질·에너지 등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이동하는가를 뜻한다. 변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관의 구조와 기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뜻한다. 경관생태학의 세 연구 대상은 구조·기능·변화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구조는 패치, 코리도, 매트릭스 등 경관 요소의 공간적 배치와 관계를 다루므로 주요 연구 대상이다.
② O: 기능은 경관 요소 간의 상호작용과 생물·물질·에너지의 흐름을 다루므로 주요 연구 대상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복원'이다. 복원은 훼손된 경관을 회복시키기 위한 관리·실천의 개념이며, 세 주요 연구 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에 따른 경관의 '변화'이다.
④ O: 변화는 시간 경과에 따른 경관 구조와 기능의 변동을 다루므로 주요 연구 대상이다.

오답 포인트

③은 경관생태학의 응용 분야인 '복원'을 기본 연구 대상처럼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구조·기능과 짝을 이루는 말은 복원이 아니라 변화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경관생태학의 핵심어는 공간 배열이면 구조, 요소 간 흐름과 상호작용이면 기능, 시간에 따른 변동이면 변화로 판단한다. 세 항목을 묻는 문제에서는 구조·기능·변화의 조합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경관생태학 3요소: 구조는 어디에 놓였는가, 기능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변화는 시간이 지나 어떻게 달라지는가이다.

NoteBase

문 3. 다음 조건에서 자연공원의 이용객 수요를 추정할 때 최대시 이용자 수는?

◯ 대상 자연공원과 유사한 곳의 연간 이용자 수는 평균 360,000명
◯ 최대일률은 3계절형(1/60)
◯ 회전율은 3시간 체재형(1/2)

① 3,000명
② 3,500명
③ 4,000명
④ 4,500명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연간 이용자 수에 최대일률과 회전율을 차례로 적용하여 최대시 이용자 수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연간 이용자 수는 360,000명이다.
최대일률은 3계절형으로 1/60이다.
회전율은 3시간 체재형으로 1/2이다.
구할 값은 최대시에 동시에 이용하는 이용자 수이다.

사용할 공식

최대시 이용자 수는 연간 이용자 수에 최대일률과 회전율을 곱하여 구한다.
최대시 이용자 수 = 연간 이용자 수 × 최대일률 × 회전율
연간 이용자 수를 최대일 이용자 수로 환산한 뒤, 체재시간에 따른 회전율을 적용해야 최대시에 필요한 이용 규모가 된다.

계산 과정

1. 최대일 이용자 수는 $360{,}000 \times \frac{1}{60} = 6{,}000$명이다.
2. 최대시 이용자 수는 $6{,}000 \times \frac{1}{2} = 3{,}000$명이다.
3. 따라서 최대시 이용자 수는 3,000명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계산 결과가 3,000명이므로 옳다.
② X: 3,500명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틀린 표현인 ‘3,500명’은 ‘3,000명’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4,000명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틀린 표현인 ‘4,000명’은 ‘3,000명’으로 고쳐야 한다.
④ X: 4,500명은 계산 결과와 다르다. 틀린 표현인 ‘4,500명’은 ‘3,000명’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최대일률만 적용하여 6,000명을 구한 뒤 회전율 1/2을 빠뜨리거나, 회전율을 반대로 적용하면 오답이 된다. 이 문항에서는 최대일률과 회전율을 모두 곱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용객 수 추정 문제는 연간 이용자 수에서 최대일률을 먼저 적용하고, 이어서 체재시간에 해당하는 회전율을 곱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연간 이용자 수 × 최대일률 × 회전율 = 최대시 이용자 수이다.

NoteBase

문 4. 조경수목의 전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철쭉류와 목련류 등 화목류는 꽃이 진 후에 전정하면 다음 해에 많은 꽃을 볼 수 있다.

② 동백나무나 목련류는 전정할 때 눈의 유무를 살펴 반드시 눈의 바로 아래에서 잘라야 한다.

③ 진달래나 철쭉류는 눈의 유무와 관계없이 어느 위치에서 잘라도 좋다.

④ 소나무류의 순자르기는 적심과 같은 효과로서 신장생장 초기인 4~5월경에 실시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수종별 전정 시기와 절단 위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개화목 전정은 다음 해 꽃눈의 형성 시기를 고려하여 실시한다. 철쭉류·목련류처럼 봄에 꽃피는 수종은 꽃이 진 직후에 전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적인 가지 절단은 남길 눈의 바로 위에서 하여 그 눈이 새 가지로 자라도록 한다. 진달래·철쭉류는 잠아의 발달이 좋아 눈의 위치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전정할 수 있다. 소나무류의 순자르기는 새순의 생장을 조절하는 적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철쭉류와 목련류는 봄에 꽃이 피는 수종이므로 꽃이 진 직후에 전정한다. 이때 전정하면 그해에 다음 해의 꽃눈이 형성되어 다음 해 개화를 볼 수 있다.
② X. 틀린 표현은 '눈의 바로 아래에서'이다. 가지는 남길 눈의 바로 위에서 절단하여 눈을 보존하고 새 가지의 생장을 유도한다.
③ O. 진달래와 철쭉류는 잠아가 잘 발달하므로 눈의 유무와 관계없이 비교적 어느 위치에서나 전정할 수 있다.
④ O. 소나무류의 순자르기는 새순을 잘라 생장을 조절하는 적심이며, 신장생장 초기인 4~5월경에 실시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눈의 바로 아래'라는 방향을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눈 아래를 자르면 남겨야 할 눈이 절단면 위쪽에 남아 새 가지의 생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개화목은 먼저 꽃이 피는 시기와 꽃눈이 만들어지는 시기를 연결해 전정 시기를 판단한다. 절단 위치를 묻는 선지는 남길 눈을 보존하는 '눈 바로 위 절단'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봄꽃나무는 꽃 진 직후, 가지는 남길 눈 바로 위, 소나무 순자르기는 4~5월 적심이다.

NoteBase

문 5.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② 국립공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관리한다.

③ 자연공원은 생태계의 건전성, 생태축의 보전·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도록 지정·관리되어야 한다.

④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은 자연생태계, 경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의 종류, 지정·관리 주체 및 지정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자연공원의 정의와 국립공원의 지정·관리 주체를 구별하는 데 있다.

용어 풀이

자연공원은 법률이 정한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법정 주체이다.

핵심 구분

「자연공원법」 제2조는 자연공원의 종류를, 제4조는 각 공원의 지정·관리 주체를 정한다.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며,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은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자연생태계·경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자연공원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자연공원법」 제2조의 정의와 일치한다.

② X. 국립공원의 지정·관리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적은 부분이 틀렸다.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한다.
틀린 표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관리한다.
올바른 표현: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한다.

③ O. 자연공원은 생태계의 건전성, 생태축의 보전·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도록 지정·관리되어야 한다. 이는 「자연공원법」 제2조의2의 기본원칙에 해당한다.

④ O.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은 자연생태계와 경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는 「자연공원법」 제7조와 일치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의 '국토교통부장관'처럼 공원의 명칭·종류와 소관 행정기관을 혼동하기 쉽다. 자연공원의 종류를 묻는 조문과 지정·관리 주체를 묻는 조문은 구분하여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무엇을 말하는가'는 정의 조문으로, '누가 지정·관리하는가'는 지정 조문으로,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가'는 지정기준 조문으로 나누어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자연공원 4종은 국립·도립·군립·지질이며, 국립공원 지정·관리는 환경부장관이다.

NoteBase

문 6. 다음 일본 조경양식을 시대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축경식(縮景式)
(나) 회유임천식(回遊林泉式)
(다) 고산수식(枯山水式)
(라) 다정식(茶庭式)

① (나) → (가) → (다) → (라)
② (나) → (다) → (라) → (가)
③ (다) → (가) → (나) → (라)
④ (다) → (나) → (라) → (가)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일본 조경양식이 성행한 시대의 선후관계를 묻는다. 회유임천식은 헤이안시대, 고산수식은 무로마치시대, 다정식은 아즈치모모야마시대, 축경식은 에도시대에 해당한다.

올바른 순서

1. 회유임천식(나) — 연못과 섬을 중심으로 한 헤이안시대의 귀족 정원 양식이다.
2. 고산수식(다) — 물을 쓰지 않고 돌과 모래로 산수 경관을 표현한 무로마치시대의 선종 정원 양식이다.
3. 다정식(라) — 다실에 이르는 길과 뜰을 구성한 아즈치모모야마시대의 차 정원 양식이다.
4. 축경식(가) — 자연 경관을 축소하여 표현한 에도시대의 정원 양식이다.

왜 이 순서: 회유임천식에서 고산수식으로, 다시 다정식과 축경식으로 이어지며 각 양식의 성행 시대가 뒤로 갈수록 늦어진다.

선지별 해설

① X. 회유임천식 다음에 축경식을 두어 축경식이 고산수식·다정식보다 앞서는 순서가 되었다. 틀린 표현: '(나) → (가) → (다) → (라)' → 올바르게는 '(나) → (다) → (라) → (가)'이다.
② O. 회유임천식 → 고산수식 → 다정식 → 축경식은 헤이안시대부터 에도시대까지의 시대 순서와 일치한다.
③ X. 다정식을 가장 앞에 두어 헤이안시대의 회유임천식보다 이른 양식으로 처리하였다. 틀린 표현: '(다) → (가) → (나) → (라)' → 올바르게는 '(나) → (다) → (라) → (가)'이다.
④ X. 다정식을 회유임천식보다 앞에 두고 축경식도 다정식보다 앞에 두었다. 틀린 표현: '(다) → (나) → (라) → (가)' → 올바르게는 '(나) → (다) → (라) → (가)'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고산수식·다정식·축경식은 모두 회유임천식보다 뒤의 양식인데, ①은 축경식을 너무 앞에 놓고 ③·④는 다정식을 너무 앞에 놓은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순서형 문제는 각 양식을 대표 시대명으로 바꾼 뒤 이른 시대부터 배열한다. 헤이안의 회유임천식 → 무로마치의 고산수식 → 아즈치모모야마의 다정식 → 에도의 축경식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회유-고산수-다정-축경은 헤이안의 물, 무로마치의 돌, 모모야마의 차, 에도의 축소 경관으로 이어진다.

NoteBase

문 7. 조경수의 성상(性狀)과 수종명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① 상록침엽교목 - 비자나무, 호랑가시나무

② 상록침엽관목 - 개비자나무, 아왜나무

③ 낙엽침엽교목 - 낙우송, 식나무

④ 낙엽활엽교목 - 풍조나무, 노각나무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경수의 상록·낙엽 및 침엽·활엽 성상에 따른 교목 분류를 묻는다.

핵심 개념

상록침엽교목은 잎이 사계절 유지되는 침엽수이며 비자나무·개비자나무가 이에 속한다. 상록활엽교목은 넓은 잎을 유지하는 수종이며 호랑가시나무·아왜나무·식나무가 이에 속한다. 낙엽침엽교목은 침엽수이면서 잎이 떨어지는 수종으로 낙우송이 대표적이다. 낙엽활엽교목은 넓은 잎이 가을에 떨어지는 수종이며 푸조나무·노각나무가 이에 속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비자나무는 상록침엽교목이지만 호랑가시나무는 상록활엽교목이다. 틀린 표현은 '호랑가시나무'의 상록침엽교목 분류이며, 올바르게는 호랑가시나무는 상록활엽교목이다.

② X. 개비자나무는 상록침엽교목이지만 아왜나무는 상록활엽교목이다. 틀린 표현은 '아왜나무'의 상록침엽교목 분류이며, 올바르게는 아왜나무는 상록활엽교목이다.

③ X. 낙우송은 낙엽침엽교목이고 식나무는 상록활엽교목이다. 틀린 표현은 '낙엽침엽교목'에 낙우송과 식나무를 함께 묶은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낙우송은 낙엽침엽교목, 식나무는 상록활엽교목이다.

④ O. 푸조나무와 노각나무는 모두 넓은 잎이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활엽교목이다.

오답 포인트

비자나무·개비자나무처럼 상록침엽수인 수종 옆에 호랑가시나무·아왜나무·식나무 같은 상록활엽수를 섞어 놓은 점이 함정이다. ③은 낙우송이 침엽수라는 사실만 보고 식나무까지 같은 분류로 판단하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수종을 먼저 상록·낙엽으로, 다음으로 침엽·활엽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한 선지에 두 수종이 제시되면 두 수종이 모두 같은 두 기준을 충족하는지 각각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비자·개비자는 상록침엽, 호랑·아왜·식나무는 상록활엽, 낙우송은 낙엽침엽, 푸조·노각은 낙엽활엽이다.

NoteBase

문 8. (가)와 (나)에 들어갈 흡즙성 수목해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주로 수목가지에 붙어서 즙액을 빨고, 분비물 때문에 2차적으로 그을음병 등을 유발하여 간접적 피해를 주는 것은 (가)이다.
◯ 잎에 황색의 반점을 만들어 수관에 불규칙한 황화현상을 만들며, 심하면 수목을 고사하게 만드는 것은 (나)이다.

① (가): 잎응애, (나): 박쥐나방
② (가): 진딧물, (나): 박쥐나방
③ (가): 깍지벌레, (나): 잎응애
④ (가): 깍지벌레, (나): 진딧물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수목 해충의 가해 부위와 피해 증상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가지에 붙어 흡즙하고 분비물로 그을음병을 유발하는 해충은 깍지벌레이며, 잎의 황색 반점과 고사를 유발하는 흡즙성 해충은 잎응애이다.

핵심 개념

깍지벌레는 가지·줄기 등에 고착하여 즙액을 빨고 감로를 배출하는 흡즙성 해충이다. 감로에는 그을음병이 생겨 간접 피해가 더해진다.
잎응애는 잎 뒷면 등에서 흡즙하여 잎에 황색 반점이 나타나게 하고, 피해가 심하면 잎이 고사한다.
박쥐나방은 유충이 줄기나 가지 속을 파고드는 천공성 해충이며, 진딧물은 새순·잎 등에 군집하여 흡즙하는 해충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가)의 '잎응애'가 틀렸다. 가지에 붙어 감로를 분비하여 그을음병을 유발하는 해충은 잎응애가 아니라 깍지벌레이다. 또한 (나)의 '박쥐나방'도 틀렸다. 박쥐나방은 줄기·가지 내부를 가해하는 천공성 해충이며, 잎의 황색 반점은 잎응애의 전형적 피해이다.
② X. (가)의 '진딧물'이 틀렸다. 진딧물도 흡즙과 감로 분비를 하지만, 제시된 가지 고착 및 그을음병 유발의 대표 해충은 깍지벌레이다. (나)의 '박쥐나방'도 틀렸고, 황색 반점과 심한 잎 고사는 잎응애로 고쳐야 한다.
③ O. 깍지벌레는 가지에 붙어 흡즙하고 감로로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잎응애는 잎에 황색 반점을 만들며, 피해가 심하면 잎을 고사시킨다.
④ X. (가)의 '깍지벌레'는 맞지만 (나)의 '진딧물'이 틀렸다. 제시된 황색 반점과 잎 고사 증상은 진딧물이 아니라 잎응애의 피해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진딧물도 감로를 분비하여 그을음병과 관련될 수 있어 (가)와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의 핵심 표현인 ‘수목가지에 붙어서’는 고착 생활을 하는 깍지벌레를 가리킨다. 박쥐나방은 잎 반점 해충이 아니라 줄기·가지 천공 해충이라는 점도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가해 부위를 확인한다. 가지·줄기에 고착하고 감로·그을음병이 제시되면 깍지벌레, 잎의 황색 반점과 고사가 제시되면 잎응애, 줄기·가지 내부의 구멍이나 목질부 피해가 제시되면 박쥐나방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깍지벌레는 가지 고착·감로·그을음병, 잎응애는 잎 황반·고사, 박쥐나방은 줄기 천공이다.

NoteBase

문 9. 페리(Clarence A. Perry)가 제안한 근린주구 조성을 위한 6가지 원칙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주거단위는 하나의 초등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를 가져야 한다.

② 주구의 경계는 주구 내 통과교통을 배제하고 차량을 우회할 수 있는 충분한 폭원의 간선도로로 계획한다.

③ 공공시설로서 학교와 교회 등은 주구 여러 곳에 분산 배치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오픈스페이스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소공원과 레크리에이션 체계를 계획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클래런스 A. 페리의 근린주구 이론에서 제시한 6가지 구성 원칙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클래런스 A. 페리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일상생활권인 근린주구를 구상하였다. 근린주구는 초등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주구의 외곽은 간선도로로 경계 짓는다. 학교·교회 등의 공공시설은 중심부에 모으며, 소공원과 레크리에이션 공간을 확보하고, 상점은 주구 가장자리에 둔다. 내부 도로는 통과교통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계획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근린주구의 규모는 하나의 초등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인구를 기준으로 정한다는 원칙과 일치한다.
② O: 주구의 경계를 폭원이 충분한 간선도로로 설정하여 외부 차량이 주구 내부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과 일치한다.
③ X: 틀린 표현은 '주구 여러 곳에 분산 배치'이다. 학교와 교회 등의 공공시설은 주민이 쉽게 이용하도록 주구 중심부에 집중 배치한다.
④ O: 소공원과 레크리에이션 공간을 포함한 오픈스페이스를 계획하는 것은 주민의 휴식·놀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원칙과 일치한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③은 접근성을 높이려면 시설을 분산해야 한다고 보이게 하지만, 페리의 근린주구에서는 학교·교회 등의 공공시설을 중심부에 모아 접근성을 확보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페리의 근린주구는 '초등학교 규모, 간선도로 경계, 공공시설 중심 배치, 공원·레크리에이션 공간, 주변부 상점, 통과교통 억제'의 연결로 판단한다. 공공시설의 분산 배치가 나오면 틀린 선지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페리 근린주구는 '학교는 중심, 상점은 가장자리, 간선도로는 경계'로 정리한다.

NoteBase

문 10. 잔디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슬라이싱(slicing)은 칼로 토양을 베어주는 작업으로 잔디의 포복경과 지하경을 잘라주어 잔디의 밀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② 풍뎅이류의 애벌레는 잔디의 뿌리를 상하게 하여 피해를 준다.

③ 잔디밭의 잡초관리에서 제거해야 할 화본과 일년생 주요 잡초에는 돌피, 바랭이, 강아지풀 등이 있다.

④ 한지형잔디의 고온성 병은 주로 푸사리움패치(Fusarium patch), 설부병 등이 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잔디 관리의 갱신 작업·해충·잡초·병해의 특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특히 병해는 발생 온도와 병명을 연결하여 판단한다.

핵심 개념

슬라이싱은 칼날로 잔디 표면과 토양을 세로로 절개하여 포복경·지하경을 자르고 통기 및 새싹 발생을 돕는 갱신 작업이다.
풍뎅이류 유충은 잔디 뿌리를 갉아먹는 지하 해충이다.
돌피·바랭이·강아지풀은 화본과 일년생 잡초이다.
푸사리움패치와 설부병은 저온기 또는 눈이 덮인 조건과 관련된 병해이며, 고온성 병해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슬라이싱은 칼날로 토양을 절개하여 포복경과 지하경을 끊는 작업이다. 잔디의 갱신과 밀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
② O. 풍뎅이류의 애벌레는 토양 속에서 잔디의 뿌리를 가해하므로 잔디가 쉽게 뽑히거나 황화되는 피해를 준다.
③ O. 돌피, 바랭이, 강아지풀은 잔디밭에서 방제 대상이 되는 화본과 일년생 잡초의 예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고온성 병'과 '푸사리움패치, 설부병'의 연결이다. 푸사리움패치와 설부병은 저온·적설 조건에서 문제가 되는 병해이다. 한지형잔디의 고온기 병해로는 갈색잎마름병과 피시움마름병 등을 든다.

오답 포인트

④는 한지형잔디가 여름 고온에 약하다는 사실을 이용해 병명을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푸사리움패치와 설부병은 이름과 발생 조건을 함께 보면 저온기 병해임을 구별할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잔디 병해 선지는 먼저 병명이 고온다습기 병해인지, 저온·적설기 병해인지를 가른다. 이어 갱신 작업은 슬라이싱·에어레이션처럼 작업 방식과 효과를, 해충과 잡초는 가해 부위와 분류를 연결하여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설부병은 눈·저온기, 피시움마름병은 고온다습기와 연결된다.

NoteBase

문 11. 다음 조경수목 중 느릅나무과(Ulmaceae)의 교목수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Betula costata
ㄴ. Carpinus laxiflora
ㄷ. Celtis sinensis
ㄹ. Zelkova serrata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경수목을 느릅나무과(Ulmaceae) 교목수종과 자작나무과 교목수종으로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 문항에서 느릅나무과 교목수종은 팽나무속의 Celtis sinensis(팽나무)와 느티나무속의 Zelkova serrata(느티나무)이다. Betula costata(거제수나무)와 Carpinus laxiflora(서어나무)는 자작나무과(Betulaceae)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ㄱ Betula costata와 ㄴ Carpinus laxiflora는 모두 자작나무과이므로 느릅나무과 수종이 아니다. 틀린 조합 'ㄱ, ㄴ' → 올바르게는 'ㄷ, ㄹ'이다.
② X. ㄱ Betula costata는 자작나무과이고, ㄷ Celtis sinensis만 이 문항의 느릅나무과 수종이다. 틀린 조합 'ㄱ, ㄷ' → 올바르게는 'ㄷ, ㄹ'이다.
③ X. ㄴ Carpinus laxiflora는 자작나무과이므로 포함될 수 없다. 틀린 조합 'ㄴ, ㄹ' → 올바르게는 'ㄷ, ㄹ'이다.
④ O. ㄷ Celtis sinensis와 ㄹ Zelkova serrata는 이 문항의 분류에서 모두 느릅나무과 교목수종이다.

오답 포인트

ㄴ 서어나무는 잎 모양이 느티나무와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학명 Carpinus는 자작나무과로 분류된다. 따라서 ㄷ·ㄹ 조합에 ㄱ 또는 ㄴ을 섞은 ①~③은 모두 틀린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명 속명을 먼저 확인한다. Betula와 Carpinus는 자작나무과로 제외하고, Celtis와 Zelkova를 느릅나무과 수종으로 묶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느릅나무과는 팽나무(Celtis)·느티나무(Zelkova), 자작나무과는
거제수나무(Betula)·서어나무(Carpinus)이다.

NoteBase

문 12. 「경관법」상 경관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관정책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회기반시설의 통합적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경관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지역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경관법」상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법정 포함 사항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계획의 수립 주기와 제6조제2항의 포함 사항을 구별하는 데 있다.

용어 풀이

경관정책기본계획은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다.

핵심 구분

현행 「경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관정책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는 사회기반시설의 통합적 경관관리, 경관 분야 전문인력 육성, 지역주민 참여가 포함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법정 수립 주기는 10년이 아니라 5년이다.
틀린 표현: '10년마다'
올바른 표현: 경관정책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O: 사회기반시설의 통합적 경관관리는 경관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③ O: 경관 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은 경관정책기본계획의 법정 포함 사항이다.

④ O: 지역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은 경관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장기계획이라는 인상 때문에 수립 주기를 10년으로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포함 사항을 묻는 ②~④와 달리 ①은 기간을 묻는 선지이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본계획 문제에서는 먼저 수립 주기·수립 주체를 확인하고, 이어 조문에 열거된 포함 사항인지 판단한다. 선지에 기간이 나오면 다른 항목과 묶어 추정하지 않고 조문의 숫자를 직접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경관정책기본계획은 5년, 내용은 사회기반시설·전문인력·주민참여이다.

NoteBase

문 13. 「표준시방서(KCS 34 60 10 : 2019)」상 놀이터 모래깔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놀이터 모래깔기 하부 원지반을 맹암거 설치방향으로 1% 기울어지게 고른다.

② 놀이시설물 주변에 까는 모래는 5mm체(NO.4)로 쳐서 유해한 물질을 걸러내는 작업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원지반과 모래의 치환 및 혼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정 규격의 부직포로 재료 분리를 실시한다.

④ 어린이놀이터 모래사장의 모래는 1 ~ 3mm 정도의 입도를 가진 것으로 먼지,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정답 1번

쟁점

이 문제는 KCS의 놀이터 모래깔기 시공기준과 어린이놀이터 모래사장용 모래의 재료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하부 원지반의 배수 경사와 모래의 선별·분리·입도 요건을 구별하는 것이다.

용어 풀이

맹암거는 지중의 물을 모아 배출하는 배수시설이다.
재료 분리는 부직포 등을 사용하여 원지반 토사와 포설 모래가 서로 섞이지 않게 하는 조치이다.

핵심 구분

국가건설기준센터의 KCS 34 60 10 친환경흙포장 3.1.6은 모래깔기 하부 원지반을 맹암거 설치방향으로 2% 기울어지게 고르도록 정한다. 같은 기준은 시설물 주변 모래를 5*mm*체(NO.4)로 2회 이상 쳐서 유해물을 걸러내고, 부직포로 원지반과 모래를 분리하도록 정한다. 어린이놀이터 모래사장용 모래는 1 ~ 3*mm* 정도의 입도이며 먼지·점토·불순물·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하부 원지반의 경사는 맹암거 설치방향으로 2%이다.
틀린 표현: '1% 기울어지게'
올바른 표현: '맹암거 설치방향으로 2% 기울어지게 고른다.'

② O. 놀이시설물 주변에 까는 모래는 5*mm*체(NO.4)로 쳐서 유해물을 걸러내는 작업을 2회 이상 실시한다.

③ O. 원지반과 모래가 치환되거나 혼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정 규격의 부직포로 재료 분리를 실시한다.

④ O. 어린이놀이터 모래사장용 모래는 1 ~ 3*mm* 정도의 입도를 가지며, 먼지·점토·기타 불순물·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배수를 위한 원지반 경사를 1%로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모래의 체질 횟수, 부직포 분리, 모래 입도는 각각 다른 기준처럼 보이지만 모두 시방서의 그대로인 반면, 경사 수치만 2%가 아닌 1%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놀이터 모래깔기 기준은 배수·안전·재료로 나누어 판단한다. 배수는 맹암거 방향 원지반 2%, 안전·청결은 모래 체질 2회 이상과 이물질 배제, 재료 분리는 부직포, 모래 입도는 1 ~ 3*mm*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모래깔기: 맹암거 방향 2%, 모래 체질 2회, 부직포 분리, 입도 1 ~ 3*mm*이다.

NoteBase

문 14. 환경부의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상 고라니 등 중형의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지역에서 포유류 동물의 이동을 위한 터널형 통로 조성 시 개방도는?

① 0.2 이상
② 0.4 이상
③ 0.5 이상
④ 0.7 이상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터널형 생태통로의 개방도 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포유류의 종 크기별 수치를 따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터널형 생태통로의 통일된 개방도 기준을 구별하는 데 있다.

용어 풀이

개방도란 통로 입구의 단면적(폭×높이)을 통로 길이로 나눈 수치이다. 개방도가 클수록 통로가 넓고 짧게 느껴져 야생동물의 이용에 유리하다.

핵심 구분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의 터널형 생태통로는 포유류·양서파충류의 분류군에 관계없이 개방도 0.7 이상을 설치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고라니 등 중형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지역의 포유류 이동용 터널형 통로에도 0.7 이상을 적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개방도 0.2 이상은 지침의 터널형 생태통로 기준에 미달한다. 틀린 표현: '0.2 이상' → 올바른 표현: '0.7 이상'이다.
② X: 개방도 0.4 이상은 지침의 통일 기준보다 작다. 틀린 표현: '0.4 이상' → 올바른 표현: '0.7 이상'이다.
③ X: 개방도 0.5 이상은 터널형 생태통로의 설치기준에 미달한다. 틀린 표현: '0.5 이상' → 올바른 표현: '0.7 이상'이다.
④ O: 터널형 생태통로의 개방도는 0.7 이상이므로 지침의 기준과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①~③처럼 0.7보다 작은 수치를 중형 포유류에 대한 별도 기준으로 착각하기 쉽다. 이 지침은 터널형 생태통로의 개방도 기준을 분류군별로 나누지 않고 0.7로 일원화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터널형 생태통로 문제에서는 먼저 개방도가 '입구 단면적÷길이'인지 확인하고, 포유류·양서파충류 구분과 관계없이 0.7 이상이라는 통일 기준을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터널형 생태통로 개방도는 '종 구분 없이 0.7 이상'이다.

NoteBase

문 15. 「표준시방서(KCS 34 30 10 : 2019)」상 일반식재기반 조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를 사용하여 최소 $0.2m$ 깊이로 시행한다.

② 흙쌓기는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 기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③ 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한다.

④ 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지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KCS 34 30 10:2019의 일반식재기반 조성에서 흙쌓기·배수·흙갈기의 세부 시공기준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흙갈기는 토양을 깊게 갈아 식물 뿌리가 자랄 기반을 만드는 작업이며, 경운기 등을 사용하여 최소 $0.3m$ 깊이로 시행한다.
흙쌓기는 비가 오는 때 대형 기계 작업을 피하여 토양의 물리성 악화와 고결을 막는 작업관리 기준이 적용된다.
표면배수는 표면유수를 계획된 집수시설로 유도하는 배수이고, 심토층배수는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 높이를 고려하여 정체수를 막는 배수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최소 $0.2m$ 깊이'이다.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를 사용하여 최소 $0.3m$ 깊이로 시행한다.
② O: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에는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을 막기 위하여 대형 기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③ O: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흘러 들어가도록 식재기반을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한다.
④ O: 식재기반은 식물의 생육심도와 지하수 높이를 고려하며, 정체수 방지를 위해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흙갈기 깊이를 $0.2m$로 낮추어 제시한 수치 함정이다. 흙쌓기의 우천 시 대형 기계 작업 제한과 표면·심토층 배수 기준은 서로 다른 항목이지만 모두 시방서 내용과 일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치가 제시된 흙갈기 선지는 최소 깊이 $0.3m$인지 확인한다. 배수 선지는 표면유수이면 집수시설과 기울기, 정체수이면 심토층 배수시설을 연결하여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흙갈기 0.3m, 표면은 집수, 심토는 정체수 배수이다.

NoteBase

문 1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접근로의 기울기는 15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③ 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2번

쟁점

이 문제는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등 통행 가능 접근로 설치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핵심은 접근로의 유효폭 · 기울기 · 연석 · 가로수 가지치기 기준을 구별하는 데 있다.

용어 풀이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하는 보행 경로이다. 연석은 접근로와 차도를 구분하는 경계석이다.

핵심 구분

접근로의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frac{1}{18}$ 이하이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frac{1}{12}$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는 유효폭을 1.2m 이상으로 정하고, 연석 높이는 6cm 이상 15cm 이하로 할 수 있으며, 가로수는 지면에서 2.1m까지 가지치기하도록 정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이어야 한다.

② X
접근로의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frac{1}{18}$ 이하이고,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만 $\frac{1}{12}$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틀린 표현: '15분의 1 이하'
올바른 표현: '18분의 1 이하.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③ O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 설치하는 연석의 높이는 6cm 이상 15cm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O
접근로의 보행장애물을 줄이기 위하여 가로수는 지면에서 2.1m까지 가지치기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②는 원칙 기울기인 18분의 1을 15분의 1로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완화 기준인 12분의 1은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구별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접근로 기준 문제에서는 먼저 기울기의 원칙과 예외를 확인한 다음, 유효폭 · 연석 높이 · 가지치기 높이를 별표 1 제1호의 수치와 대조하여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접근로는 폭 1.2m, 기울기 원칙 1/18, 예외 1/12, 가로수 2.1m이다.

NoteBase

문 17. 「표준시방서(KCS 34 70 25 : 2016)」상 등산로를 정비할 때 종단 기울기가 20% 이상인 등산로 노면정비공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침목계단
② 통나무계단
③ 통나무원목계단
④ 화강풍화토 포장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표준시방서(KCS 34 70 25:2016)」에서 종단기울기 20% 이상인 등산로에 적용하는 노면정비공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급경사 구간에는 단차를 만드는 계단형 공법을 적용하고, 화강풍화토 포장과 구별하는 데 있다.

용어 풀이

종단기울기 = 등산로가 진행 방향으로 오르내리는 경사이다.
노면정비공법 = 등산로 바닥의 침식·미끄럼·통행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면을 정비하는 방법이다.

핵심 구분

문항에 제시된 KCS 34 70 25:2016의 경사 기준에서는 종단기울기 20% 이상 구간에 침목계단, 통나무계단, 통나무원목계단과 같은 계단형 공법을 적용한다. 화강풍화토 포장은 이 급경사 구간의 계단형 노면정비공법이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침목을 가로로 설치하여 단차를 만드는 침목계단은 종단기울기 20% 이상 등산로에 적용하는 계단형 공법이다.

② O
통나무를 이용해 단차를 형성하는 통나무계단은 급경사 구간의 노면을 안정시키는 계단형 공법이다.

③ O
통나무원목계단도 원목으로 단차를 만드는 계단형 공법이므로 해당 경사 구간에 적용할 수 있다.

④ X
틀린 표현: '화강풍화토 포장'
화강풍화토 포장은 종단기울기 20% 이상 구간에 적용하는 계단형 노면정비공법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이 구간에 침목계단·통나무계단·통나무원목계단과 같은 계단형 공법을 적용한다.

오답 포인트

④는 화강풍화토라는 자연스러운 재료명을 제시해 등산로 포장으로 보이게 한다. 그러나 이 문항의 판단 기준은 재료의 친환경성이나 포장 가능성이 아니라 '종단기울기 20% 이상'이라는 급경사 조건이므로, 계단형 공법인지부터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등산로 노면정비 문제에서는 먼저 경사도를 확인한다. 20% 이상처럼 급경사 조건이 제시되면 보행 단차를 확보하는 침목·통나무 계단류를 고르고, 평탄하게 다지는 포장류는 급경사 계단공법과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등산로 20% 이상은 포장보다 계단이다: 침목·통나무·원목계단이다.

NoteBase

문 18. 「표준시방서(KCS 34 40 05 : 2019)」상 고사식물의 하자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에는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뭄에 의한 고사는 고사율에 따라서 하자보수한다.

③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1/2 이상이 마르면 고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고사기준율이 10% 미만이면 전량 하자보수가 면제된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표준시방서(KCS 34 40 05 : 2019)」상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대상, 면제 사유, 수목 고사 판정 및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은 식물의 범위와 고사 원인, 고사 판정 비율, 고사기준율별 보수의무를 정확히 대응시키는 데 있다.

용어 풀이

하자보수는 식재된 식물이 고사한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고사기준율은 수종별·규격별 수량에 대한 고사목의 비율이며,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의무를 정하는 기준이다.
지급 수목재료는 발주자가 제공한 수목재료를 말한다.

핵심 구분

KCS 34 40 05 : 2019의 고사식물 하자보수 기준상 하자보수 대상에는 수목뿐 아니라 지피류·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도 포함된다.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뭄 등으로 고사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면제한다.
수목은 수관부 가지의 2/3 이상이 마르거나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육상태가 불량하면 고사로 간주한다.
지급 수목재료는 고사기준율이 10% 미만이면 전량 하자보수가 면제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하자보수 대상 식물의 범위를 제외한 설명이므로 틀리다. 지피류·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도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 하자보수 대상에 포함된다.
틀린 표현: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올바른 표현: "지피류, 숙근류 등의 다년생 초화류도 하자보수 대상에 포함된다"

② X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뭄으로 고사한 경우는 고사율에 따라 보수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자보수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 "고사율에 따라서 하자보수한다"
올바른 표현: "하자보수를 면제한다"

③ X
수목의 고사 판정 비율을 낮게 적은 설명이다. 수관부 가지의 1/2 이상이 아니라 2/3 이상이 마르거나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생육상태가 불량한 경우 고사로 간주한다.
틀린 표현: "수관부 가지의 1/2 이상"
올바른 표현: "수관부 가지의 2/3 이상"

④ O
지급 수목재료의 고사기준율이 10% 미만이면 전량 하자보수가 면제된다. 표준시방서의 고사기준율별 보수의무와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다년생 초화류를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한 점, ②는 유지관리비용 미지급 상태의 가뭄 고사를 면제가 아닌 보수 사유로 바꾼 점이 함정이다. ③은 수목 고사 판정의 핵심 비율을 2/3에서 1/2로 낮춘 오답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사식물 하자보수 선지는 먼저 대상 식물이 수목과 다년생 초화류인지 확인하고, 이어 고사 원인이 면제 사유인지와 수목 고사 판정 비율이 2/3인지 판단한다. 지급 수목재료가 나오면 고사기준율 10% 미만의 전량 면제를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다년생 초화류도 대상, 미지급 상태 가뭄은 면제, 수관부 2/3, 지급수목 10% 미만은 전량 면제이다.

NoteBase

문 19. 다음에서 설명하는 조경수종은?

◯ 물푸레나무과에 속하며 낙엽활엽교목이다.
◯ 줄기는 회갈색 또는 회색이고 열매는 타원형의 핵과이다.
◯ 흰색 꽃이 피고, 넓은 수관을 형성하여 녹음수, 가로수로 이용한다.

① Chionanthus retusus
② Forsythia koreana
③ Ligustrum obtusifolium
④ Osmanthus fragrans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물푸레나무과 수종을 생육형, 꽃색, 열매 유형, 이용 용도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팝나무(Chionanthus retusus)는 물푸레나무과의 낙엽활엽교목으로, 흰 꽃과 타원형 핵과를 가지며 넓은 수관을 이루는 수종이다. 개나리와 쥐똥나무는 낙엽관목이고, 금목서는 상록활엽의 소교목 또는 관목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Chionanthus retusus는 이팝나무이다. 물푸레나무과의 낙엽활엽교목이며, 흰 꽃이 피고 타원형 핵과가 달린다. 넓은 수관을 형성하여 녹음수와 가로수로 이용한다.
② X. Forsythia koreana는 개나리이다. 틀린 표현은 '흰색 꽃이 피고, 타원형의 핵과'이다. 올바르게는 노란 꽃이 피는 낙엽관목이고 열매는 삭과이다.
③ X. Ligustrum obtusifolium은 쥐똥나무이다. 틀린 표현은 '낙엽활엽교목'과 '넓은 수관을 형성하여 녹음수, 가로수로 이용'이다. 올바르게는 낙엽활엽관목으로, 주로 생울타리용으로 이용한다.
④ X. Osmanthus fragrans는 금목서이다. 틀린 표현은 '낙엽활엽교목'이다. 올바르게는 물푸레나무과의 상록활엽 소교목 또는 관목이며 향기로운 꽃이 핀다.

오답 포인트

③은 흰 꽃과 물푸레나무과라는 공통점 때문에 이팝나무와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쥐똥나무는 넓은 수관을 만드는 교목이 아니라 생울타리로 쓰이는 관목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종 문제에서는 먼저 교목·관목과 낙엽·상록을 가르고, 이어 꽃색·열매·이용 용도를 대조한다. 흰 꽃, 타원형 핵과, 넓은 수관, 녹음수·가로수라는 조합이면 이팝나무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이팝나무는 '흰 꽃·핵과·낙엽교목·넓은 그늘'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20. 「도시공원 · 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상 녹지 유형별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태통로 기능의 연결녹지조성에서 폭은 최소 10m 이상으로 하고, 녹지율은 70% 이상으로 한다.

③ 녹도 기능의 연결녹지조성에서 폭은 최소 10m 이상으로 하고, 녹지율은 70% 이상으로 한다.

④ 생태통로를 목적으로 하는 연결녹지는 도시지역 내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보행자의 안전 및 쾌적성 확보 등의 역할을 한다.

정답 4번

쟁점

이 문제는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상 완충녹지와 연결녹지의 설치기준, 특히 생태통로형과 녹도형 연결녹지의 기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용어 풀이

연결녹지는 공원·녹지 등을 선형으로 연결하는 녹지이며, 생태통로형과 녹도형으로 나뉜다.
생태통로형은 소생물의 이동통로와 서식지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녹도형은 녹지의 연결과 보행자의 안전·쾌적성 확보를 함께 추구한다.

핵심 구분

현행 지침 5-1-2는 완충녹지를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m$ 이상으로 하도록 정한다. 지침 5-2-3과 5-2-4는 생태통로형과 녹도형 연결녹지 모두 폭 최소 $10m$, 녹지율 70% 이상으로 정한다.
생태통로형은 동물 이동과 서식에 중점을 두어 보행자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차폐할 수 있다. 반면 보행자의 안전 및 쾌적성 확보는 녹도형의 역할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완충녹지는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폭을 최소 $10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O. 생태통로 기능의 연결녹지는 폭 최소 $10m$, 녹지율 70% 이상이라는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③ O. 녹도 기능의 연결녹지도 폭 최소 $10m$, 녹지율 70% 이상이라는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④ X. '생태통로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틀렸다. 생태통로형은 소생물의 이동통로·서식지 제공이 중심이고 보행을 제한할 수도 있다. 올바른 표현은 '녹도를 목적으로 하는 연결녹지는 도시지역 내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보행자의 안전 및 쾌적성 확보 등의 역할을 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생태통로'와 '녹도'의 명칭을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폭과 녹지율은 두 유형이 같으므로 수치만 보고 판단하면 혼동하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결녹지 문제에서는 먼저 기능을 확인한다. 동물 이동·서식지이면 생태통로형, 사람의 보행 안전·쾌적성이면 녹도형으로 판단한 뒤 폭과 녹지율 기준을 대조한다.

암기 포인트

생태통로는 동물길, 녹도는 사람길이다. 두 유형 모두 폭 최소 $10m$·녹지율 70% 이상이다.

NoteBase